

# 베트남의 미래를 가다

정보화기획팀 [한문승] 팀장

1994년부터 10년 동안 베트남의 통신 보급률을 살펴 보면 베트남 국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베트남 젊은이들의 IT에 대한 관심의 수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아직까지 전체 인구 대비 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무선통신 서비스(238배)와 인터넷에 대한 성장률(621배)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환경의 폭발적인 성장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혁신)'로 일컬어지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중반, 인도차이나반도의 작은 소국 베트남은 막강대국 프랑스를 대적, 5천여명을 몰살시켜 프랑스군 스스로 전의를 상실케 하는 한편 인도차이나반도의 지배마저 포기하게 만든 나라였다. 이후 1964년 Pax Americana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미국 또한 이 땅을 세계 패권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으나, 5만여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을 뿐, 뼈아픈 패배를 안고 돌아갔다. 잘나가던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다. 강렬한 민족의식과 세계 최강국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혼을 가진 인구 8천만의 국가, 바로 베트남이다.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현재의 국민소득 460달러 수준의 경제 약소국이라는 선입관으로만 그들에게 접근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항상 머리가는 대로만 하기도 힘든 법. 지난 6월 베트남 호치민시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해도 진행해야 할 비즈니스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으로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관심인지, 미주나 유럽 출장 때와는 달리 그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호치민시내로 들어서자 '혁' 소리가 나올 정도의 열기와 습기에 대해 한 번 놀랐을 뿐. '아~아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참 대단하다'. 35°C를 잊도는 살인적인 더위와 열대우림의 끈적끈적한 습기에 그저 현지인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만을 자아낼 뿐이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차도를 메운 오토바이 행렬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오토바이 행렬은 시내 한복판 사거리에서 버스, 트럭, 택시, 자전거, 길 건너는 사람 등과 신호등 하나 없이 서로 뒤엉킨 채 이슬아슬한 그들만의 관습으로 큰 사고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색다른 광경에 놀라는 것도 잠시, 가만히 지켜보니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흔히 보던 버스, 트럭, 택시, 오토바이 등이 많다는 것이다. '개별화물'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이고 다니는 트럭 등에서 베트남의 교통수단에 있어 'Made in Korea'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점점 '베



트남'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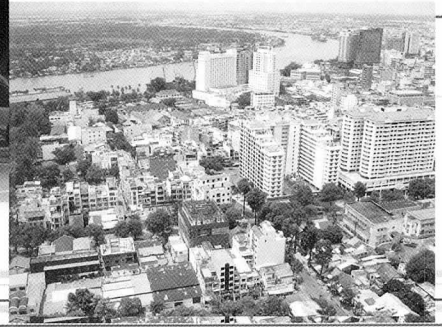
베트남은 그 나라의 근로자들 평균 임금 수준을 기증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한 달 봉급이 약 100불 정도라 한다. 이는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단말기 한 대를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교통 및 통신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듯 하다. 오토바이의 물결도 그렇지만 지난 1994년부터 10년 동안 베트남의 통신 보급률을 살펴 보면 베트남 국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베트남 젊은이들의 IT에 대한 관심의 수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아직까지 전체 인구 대비 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무선통신 서비스(238배)와 인터넷에 대한 성장률(621배)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환경의 폭발적인 성장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혁신)'로 일컬어지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이후 매년 7%가 넘

는 경제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당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 수립 후, 이제 불과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12년의 짧은 수교역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베트남의 여기저기에 Korean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재원 등을 포함하여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하노이시가 1,500여명, 호치민시가 15,000여명, 그밖에 소도시를 포함하여 대략 17,000여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거주 인구는 최근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의 한국인 거주 인구 차이는 두 도시간 경제적 규모의 심한 편차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 편차는 다국적기업의 호치민 지점 직원을 하노이로 전보 발령내면 바로 사표를 쓸 정도라고 한다.

한국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가 중 투자 규모 면에서 4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나 1, 2, 3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수교한 지 30년이나 되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이라는



[ 베트남 통신서비스 시장의 10년간 성장률 ]

구분	1994년	1999년	2004년	10년간 성장률
통신보급률 (100인 기준)	0.8%	3.8%	10.1%	12배
1) 총 가입자수	60만명	2백91만명	8백29만4천명	14배
2) 유선가입자수	58만5천명	2백1십만명	4백53만7천명	8배
3) 무선가입자수	1만5천명	8십만명	3백75만7천명	238배
PC 보급대수	16만대	5십만대	1백20만대	8배
Internet 가입자수	1천명	15만명	62만1천명	621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일 것이다. 더불어 최근 3년간의 투자규모만을 본다면 두 번째로 경증 순위가 올라간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3년 한 해 동안 16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투자 금액은 3억1천7백만 불, 지난 12년간 662개의 프로젝트에 총 41억6천백만 불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이 투자한 국가 중 규모 면에서 중국 다음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을 더 이상 그저 우리보다 못사는 작은 나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곳의 미래에는 무궁한 성장 가능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에는 바닷물 위로 울창하게 뒤엉켜 자라는 '망그로브'라는 소금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있다. 베트남은 보통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도시를 휩싸고 있는데,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아예 조그마한 여러 개

의 섬이 육지처럼 붙어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반이 약해 건물이나 도로의 건설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또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은 베트남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사회주의국가의 공무원들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의사 결정에 있어 한 두 달은 기본이라고 한다. 항상 '빨리빨리'만을 외치는 우리의 문화로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좋은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점들도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베트남으로의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통신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타고 있으며, 지금의 통신 사용 인구가 전체 대비 5%내외란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 중국에의 진출 시 시장 가능성만 보고 성급하게 뛰어 들어 힘들었던 과오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오토바이를 타면서 한국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보는 호치민 시내의 모습은 첫 인상과는 다른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온다.